

2019년 인권경영위원회 결과 보고

실효성 높은 인권경영 추진체계 기반 마련을 위한
재단의 제1회 인권경영위원회 개최 결과를 보고드립니다

☐ 회의 개요

- 일시 : 2019.12.5.(목) 오후4시~5시30분
- 장소 : 서울관광재단 9층 대회의실
- 참석 : 위원장, 내부위원(1인), 외부위원(3인), 간사 등 총 6명
- 내용
 - 서울관광재단 인권경영 내외부 위원 인사 및 추진현황 소개
 - 추진계획 적절성 검토 및 효과적인 인권경영 추진방향 의견청취

☐ 주요 논의 내용

- **인권분야 경영평가 우수기관을 위해서 베스트 사례발굴 절실**
 - 당연히 인권경영 분야가 경영평가에 반영되므로, 많은 기관이 프레임을 충족시키는 수준에서 준비하고 있으나, 전파할 만한 사례 발굴 필요
 - 직원들의 자발적 아이디어를 도출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만들고, 재단만의 스토리텔링을 반영한 우수사례를 도출해야함
 - 우리가 만든 제도가 전 공공기관에 전파될 수 있고, 글로벌하게 파급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함
- **인권경영선언문에도 재단만의 스토리를 가미해야 함**
 - “시민이 행복해야 관광객이 행복하다”, “공정관광선언문 등 각종 선언문을 참고하여 작성 시 어떤 차별점을 부각해야 할지 연구해야 함
- **선제적으로 재단이 할 수 있는 분야를 선도해야 함**

- 관광시민과 협력사, 직원들이 신나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줄 수 있는 친 인권 관련 제도를 개발하고 적극적으로 확산시켜야 함
- **인권구제-침해방지를 위해 전담 조직과 전담 인력의 배치가 중요**
- **인권침해 가해자에 대한 명확한 기관 입장 정리가 중요**
 - 무관용(Zero-tolerance)원칙 등 인권침해 가해자에 대한 명확한 처벌 의지를 공표하여 명확한 재단의 인권보호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 중요
- **기관 현실에 맞는 인권경영 규정의 마련이 중요**
 - 신고인과 피신고인 등 인권구제 대상 범위에 대한 검토도 필요
- **인권경영의 정착과 확산을 위해서 각종 사업에 인권경영지표를 반영해야 함**
 - 입찰용역평가에 수행사의 인권경영추진정도 또는 양성평등친화기업여부 등 각종 친인권평가지표를 반영함으로, 인권경영의 조기 안정화를 도모
- **인권경영 규정의 양성평등 강화를 통해 인권경영 의지 제고필요**
 - 인권경영규정 제12조(여성권리 및 모성보호) 중 여성 노동자의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이란 표현은 남성의 가사 및 육아참여가 보장되지 않은 미흡한 수준
- **인권교육 내실화를 위한 고위 직급자의 교육 참여를 강화**
 - 대부분 하위직급자들이 참가하고 팀장급은 교육에 참가하지 않은 경우가 많음. 개인평가 등에 반영하여 교육 참가의 필요성을 강화해야 함